전주시,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기획전시

닥종이 인형으로 엿보는 조선왕실의 위엄

18일까지 시청 로비서
왕실문화 입체적으로 표현
전주한지 콘텐츠 발굴
한지산업 영역 확대 '주목'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내달 17일까지 특별전
'꽃심의 도시, 전주' 개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시는 지난 3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주간 시청 로비에서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4년부터 제작중인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50면(등장인물 1,299명, 말 379필, 의장류 2,026점) 중 한지공예로 제작된 닥종이 인형 총 1,108점(등장인물 460명과 말 71필, 기타 의장류 577점)이 전시된다.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재현사업은 조선왕실의 위엄과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의궤인 영조 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행렬을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의궤를 닥종이 인형으로 재현해 조선왕실문화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전주한지 콘텐츠 발굴 및 한지산업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태조어진 봉안행렬 반차도 재현사업'을 추진,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 상설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기여한 바 있다.

전주시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는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역사학자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증을 받아 조선시대 의복과 물품을 사실적으로 작품에 담아온 양미영 작가는 "외규장각 의궤는 한지에 기록된 뛰어난 조성왕실 기록으로 이를 전주한지 인형으로 재현해 소개하고 싶었다"며 "외규장각 의궤가 프랑스에서 5년 단위 임대 형식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한 반환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역사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9월 17일까지 전주 정신 특별전 '꽃심의 도시, 전주'를 개최한다.

전주정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리며(대동) 삶의 여유와 멋을 잃지 않고(풍류), 사람의 도리와 의로움을 추구하며(올곧음), 창의적 미래를 열어가는 것(창신, 創新)을 토대로 한 '한국의 꽃심'으로, 지난해 6월 전주시민의 날에 선포됐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주정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옛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듯 힘찬 용이 새겨진 경기전 운용문 암막새, 완판본, 부채, 서화 등 전주정신 '꽃심'의 역사적 근거를 보여주는 40여점의 유물이 전시된다.

전주시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기획전시 이후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촌진흥청 등 혁신도시 주요기관과 전북도청, 정부 세종청사 등 이동 기획전시를 통해 의궤 재현사업 및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문예 계간지 '표현' 올 여름호 발간

문예 계간지 '표현'(발행인 서정환) 2017 여름(66)호가 발간됐다.

소재호 회장은 이번 호에 쓴 '권두언'에서 조선일보・2017년 6월 14일자 문화면에 실린 '1979년 전북에서 창간된 표현은 지난 겨울호부터 전국구 필진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반년간지에서 계간지로 체제를 바꿨다. 이 잡지를 이끌고 있는 소재호 시인은 지역문예지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편견에 절치부심했다며 문학뿐 아니라 문화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 인문학적 깊이를 더 할 것이다'는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빌려 '표현'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화두에 올리게 됐다며, 새로운 모럴과 정신의 정립으로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예지 표현은 '문학'이 모든 예술 장르의 정신적 테마의 기저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학성을 제고함은 물론 인문학적 사유를 담아냄으로써 문인들과 독자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하고 문향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전주부채문화관 '바람의 전설… 후예들' 8일까지 전시

박삼희 '모란도'
송민희 '화조도'

전주부채문화관(관장 이향미)은 '바람의 전설... 후예들'을 열고 있다.

이번 초대전에는 전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방화선과 함께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부채 동아리 '나린선'이 참여한다.

방화선 선자장은 故방춘근(전북도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의 장녀로, 유년시절부터 100년 동안 가내수공업으로 이어져 온 단선부채를 제작하면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매 전시 때마다 감각적인 단선부채를 선보이며, 현재 자신의 창작활동과 더불어 '나린선' 부채 동아리를 통해 제자 육성에도 큰 힘을 쏟고 있다.

나린선의 회원인 구순주, 김선희, 박삼희, 박수정, 송민희, 심성희, 이정욱, 이미경, 이지숙, 정경희, 황보연 씨 등은 20년전 우연히 받은 방화선 선자장의 부채를 계기로 단선 제작을 배우기 시작하거나, 공예나 그림을 전공하다가 부채에 매력을 느껴 방화선 선자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선자장의 배움 아래 자연스럽게 모인 이들은 단선부채의 맥과 멋을 올곧게 지켜 나가는데 여념이 없다.

방화선 선자장은 "이미 많은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고, 무형문화재의 역할은 전통계승과 제자 육성이 크다고 생각하기에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실력향상과 함께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8일까지며 문화관 지선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월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꽃그림이야기 초대展, 오늘 섬진강댐 물 문화관서

K-water 섬진강댐관리단(단장 변종만)은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사)임실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공동으로 전은숙 작가를 초청해 '꽃그림이야기 압화작가 초대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섬진강댐 물 문화관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는 도민과 전국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올들어 일곱 번째 펼쳐지는 문화행사다.

이번 '꽃그림이야기 압화작가 초대展'은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담은 꽃그림이야기 압화 작가들의 작품 20여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진행된다.

섬진강댐관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섬진강댐 물 문화관을 찾아 주시는 방문객들에게 한여름 무더위에서 피어나는 한 떨기 꽃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줄 수 있도록 볼거리를 선사하고 친수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 시나리오 스쿨 교육생 모집

(사) 전주영상위원회(이하 전주영상위)는 '전주 시나리오 스쿨' 장편 기초과정의 교육생을 1~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장편영화 시나리오 작성을 준비하는 지역 (예비)작가들을 위해 마련됐다. 트리트먼트 쓰기를 목표로 하며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처음 써보는 이들도 수강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며, 총 7회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총 1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전주영상위 홈페이지(www.jjfc.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개별 장편영화 시놉시스와 함께 이메일(apply@jjf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